

4월 독일 및 주변지역 관광시장동향

■ [동향] 루프트한자 연쇄 파업에 따른 한국행 항공 공급 급감

- 4월 부활절 연휴 복귀 시점과 맞물려 루프트한자 조종사 노조(VC)와 객실 승무원 노조(UFO)의 연쇄 파업이 발생하면서, 독일 내 주요 허브 공항인 프랑크푸르트와 뮌헨을 기점으로 하는 대규모 항공편 결항 사태가 이어짐.
- 특히 한국행 직항 노선의 경우, 뮌헨-인천 노선(4월 10, 13, 14, 15일)과 프랑크푸르트-인천 노선(4월 13, 15, 17일)에서 총 7회의 결항이 집중적으로 발생함.
- 해당 기종의 좌석 수(293석)를 고려할 때, 이번 파업으로 인해 총 2,051석의 한국행 항공 좌석이 단기간에 증발하였으며, 이는 우리 국민의 귀국길과 비즈니스 여행객의 이동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함.
- 이번 공급 급감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항공유 부족 이슈와 맞물려 항공권 가격 상승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으며, 장기적으로는 독일발 한국행 관광 수요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.

■ [동향/전망] 루프트한자EU, 항공유 부족 우려에 따른 공급 안정화 방안 추진

- 중동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여파로 유럽 내 항공유 부족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, EU 집행위원회는 역내 항공유 재고의 공동 활용 및 재분배 방안을 검토 중임. 댄 요르겐센 EU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은 유럽의 위기가 고유가를 넘어 공급 부족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으며, 특히 중동 의존도가 높은 항공유 분야에서 그 영향이 가장 가시화될 것이라고 언급함.

- 국제에너지기구(IEA)에 따르면 현재 유럽의 항공유 재고는 약 6주분에 불과하며, 이에 대응해 루프트한자와 KLM 등 주요 항공사들은 운항 일정을 축소하고 있음. EU는 차주 중 실시간 재고 파악을 위한 '연료 관측기구(fuel observatory)' 신설과 대체 조달처 발굴 등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임.
- 항공유 공급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항공권 가격 상승은 물론, 의약품·반도체 등 항공 화물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져 제조업 공급망과 소비자 물가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, 방한객 감소로 직결될 것으로 전망됨.

■ [동향] 독일 휴가철 항공편 팬데믹 이전 수준 회복

- 독일 항공협회(BDL)에 따르면, 이번 여름 시즌 독일 공항의 단거리 및 중거리 노선 좌석 수는 약 1억 1,500만 석에 달할 것으로 보임.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수준의 99%까지 회복된 수치임.
- 독일의 항공 교통 회복세는 여타 유럽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더딘 편이며, 라이언에어(Ryanair), 위즈에어(Wizz Air) 등 해외 저비용 항공사(LCC)들은 독일의 높은 공항 이용료와 세금 부담으로 인해 독일보다는 타 국가를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추세임.

■ [동향/전망] 독일 비즈니스 여행의 효율화 및 단거리 노선 집중 현상

- 독일 비즈니스 여행 협회(VDR)의 분석에 따르면, 지난해 비즈니스 여행 건수는 1억 1,610만 건으로 2024년 대비 8.3% 증가하며 경기 침체 속에서도 성장세를 기록함. 특히 유럽 내 해외 출장 비중이 24%에서 30%로 상승한 반면, 장거리 여행은 정체되고 독일 내륙 여행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.

- 기업들이 출장 빈도는 높이되 효율성을 극대화함에 따라, 1회 출장당 평균 비용은 전년 대비 4.8% 감소한 418유로를 기록함. 이는 항공편 이용을 줄이고 이동 거리를 단축하는 등 보다 경제적인 이동 수단을 선택한 결과로 분석됨.
- 특히 직원 수 10~500명 규모의 중소기업들이 비즈니스 여행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, 이들은 대기업보다 약 5배 빠른 속도로 출장 활동을 늘리고 있음. 이들 기업은 짧은 기간 동안 특정 목적에 집중하여 독일 및 유럽 내에서 저비용 위주의 효율적인 출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함.

■ [동향] 독일 비즈니스 여행 지출 규모 세계 3위 기록

- Booking.com 데이터에 따르면 독일은 비즈니스 여행 지출액 690억 유로를 기록하며 전 세계 3위를 차지함. 이는 최근 독일의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수출 주도형 국가로서 비즈니스 출장이 필수적인 경제 구조를 반영함.
- 특히 자동차, 기계 공학, 화학 등 전통적인 주력 산업 분야에서 높은 출장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, 독일 비즈니스 여행객들은 유럽 내에서 가장 활동적인 집단으로 특히 북미 및 아시아 노선에서 높은 활성도를 보임.

■ [동향/전망]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아시아 및 중동발 관광 수요 위축

-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로 인해 스위스, 오스트리아 등 주요 인접국의 아시아 및 중동 관광객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음. 스위스 관광청은 두바이 등 중동 허브를 경유하는 항공편 결항으로 인해 3월 중 아시아 관광객의 여행 취소가 가시화되었으며, 취리히와 루체른 등 주요 도시의 식당 및 소매업체가 해외 고객 부재로 인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밝힘.

- 오스트리아 역시 비엔나 고급 호텔 투숙객이 20% 감소하는 등 중동 방문객 급감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음. 특히 일반 관광객 보다 지출 규모가 큰 중동 고객의 부재로 관광 수입 손실이 예상되며, 전반적인 불확실성 확산으로 인해 올해 여름과 가을 시즌의 신규 예약까지 지장을 받고 있는 상황임.
- 방문객 감소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해당 노선의 항공편 운항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, 이는 결과적으로 아시아 및 중동으로 향하는 유럽발 관광객 수요까지 위축시키는 연쇄적인 감소 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됨.

(참고자료) 언론 기사, 관광 전문지, 주요기관 보고서, 자체조사 등

[heute journal vom 15.04.2026 Lufthansa-Streik, Prämien-Streit, Ölkrise trifft China – YouTube](#)

[BDL-Auswertung: Fast so viele Urlaubsflüge wie vor Corona](#)

[Bahn und Straße attraktiver: Flug verliert bei Geschäftsreisen deutlich](#)

[Ranking Geschäftsreisen: Diese Länder geben am meisten für Dienstreisen aus](#)

[Folgen für Europa: Iran-Krieg bremst Tourismus aus Asien und Nahost](#)

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EU 경제통상 브리핑 4월 4주차 보고서